

교회:

부서:

이름:

예수교사도의신앙교회 출판부

# 청장년부 공과

## 제 15 권



# <청장년부 공과 제 15 권>

주제: 성경 속 인물 탐구

공과	제목
제183공과	아브라함
제184공과	롯의 아내
제185공과	이삭
제186공과	에서
제187공과	침례요한
제188공과	부활하신 그리스도
제189공과	베드로
제190공과	바울
제191공과	요나
제192공과	엘리사
제193공과	모세의 어머니
제194공과	솔로몬
제195공과	공과 복습

## 들어가면서

사전에서 프로필(profile)의 뜻 중 하나는 “인물의 가장 뛰어난 특성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생생한 전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서 우리가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인물들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 위험한 일을 겪은 인물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습니까? 큰 물고기 배 속에서 3일을 지낸 요나 이야기를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승리의 삶을 산 인물도 있습니다. 모세를 제외하고 어떤 선지자들보다 많은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여러 가지 교훈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중에 세상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소돔을 떠나며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지 못한 롯의 아내를 살펴보면서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5권에서는 우리가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12명의 성경 인물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믿음을 끝까지 지킨 “믿음의 영웅”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을 통해 성경적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공과는 지금까지 배운 공과들을 복습하면서 성경 속 인물들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요약해 볼 것입니다.

## 제183공과 아브라함

성경본문: 창세기 12:1-4, 15:1-6, 21:1-5

보조성경: 로마서 4:3, 17-21

요절: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8)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행위에 이르렀다. 이 신실성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고 한 약속을 받았다. 그 약속은 이러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창 12:3). 그의 믿음과 순종 및 의로 인하여 그의 아들 이삭의 신비한 출생을 포함하는 많은 약속들이 위로부터 주어졌다. 열국 족속들에게 구원을 가져오실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람에게 하신대로 이삭의 계보를 좇아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 주셨다. 이는 그가 그 메시아를 통하여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1. 창세기 12:1-3절 말씀 가운데서 아브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2. 아브람으로서는 그의 아비 집과 친척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의 가족을 생각한다면 더 쉬운 길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고향과 친척들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게 만들었던 요인들 중 몇 가지를 적어 보라.

3. 하나님께 대한 아브람의 순종은 그의 가족들과 그의 먼 후대의 후손들과 오늘의 우리들에게까지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끼쳤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경우 다른 이들이 이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까?

4.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에 아브람은 순종하였다(창 15:9-11). 그 제사의 과정에서 아브람이 술개들을 쫓은 행위의 중요성을 말해 보라. 또 이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 하시는 바 헌신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할 때 취하게 되는 우리의 행위와 비교하여 그 공통

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라.

5. 창세기 15:17절에 보면, 아브람은 그의 제사가 열납 되었다는 한 가지 증거(그의 제물에 연기 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이 임하였음)를 받았다. 곧 그는 그가 가나안 땅을 상속하게 되리라는 증거를 받은 것이다. 오늘의 우리도 우리의 예배나 헌신이 하나님께 열납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6.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가운데는 한 아들이 기적적으로 태어나리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 당시의 상황 곧 그의 아내 사라와 그 자신의 나이 많음을 고려해볼 때, 도저히 그 약속을 인간적으로는 믿기가 어려울 터인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로마서 4:20,21).

7. 창세기 17: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게 한 아들이 분명 태어나리라” 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아들과 관련한 한 가지 명령을 주셨다. 그 명령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의 성경본문 가운데서 그가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구절을 찾아보라.

8.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범위를 적어보라. 오늘 요절에 나오는 그 약속 가운데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까지 적용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 해 답

1. 여러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으며, 약속된 축복을 받고 싶은 욕망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심일 수도 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떤 신령한 은혜나 축복이든지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만 된다 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원한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의 기초가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

실을 잊지 말자!

2. 이런 답까지 성경은 명확하게 계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단순한(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같이 고향과 아비 집과 친척 등을 떠났을 것으로 본다. 오늘의 우리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는 몇 가지의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중심영향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의 경건한 모본들과 신앙선배들의 교훈이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아이같이 의지하고 싶고, 믿고 따르고 싶어 하는 것이다.

3.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좀 더 열심히 찾거나 할 때 이로 인해 다른 이들이 신앙적인 좋은 영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그에 합당한 결실을 각각 가져 온다고 하는 것을 실생활 가운데서도 한번 찾아보라. 열심히 일하였을 경우와 그렇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와 하나님께 부여 받은 사명에 충성하였을 경우와 그렇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결과는 어떠한지와 가정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경건하게 행동하였을 경우와 그렇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을 한번 살펴보라. 아마도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선악 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4.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하심의 증거가 오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럼에도 아브람은 끝까지 제단에 제물을 드린 후 이를 방해하는 술개들을 쫓아내는 일을 계속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의 그의 순종적인 헌신의 제사행위를 포기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원수 마귀가 와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열납되지 못하게 하려고 꾀방하게 되는 어려움을 당할 경우가 있다. 그럴지라도 계속 순종하며 헌신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열납된다. 도중에 방해가 있다고 하여서 그만두는 것은 아무 축복도 받지 못하게 한다.

5. 우리의 헌신이 열납되었다면 그 사실을 성령께서 여러 가지로 보여 준다. 곧 내적인 확신이 어떤 문제로 기도한 결과 충만하게 온다든지, 혹은 간구나 탄원의 기도가 확실하게 응답된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약속을 받거나 깨닫거나 하여 그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담대하

며 기쁨이 충만해지는 등등이 있다.

6. 아브라함은 모든 상황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도 전능자이신 하나님에게는 다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굳게 깨닫고 믿었던 것이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역경을 당하여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승리한 경험들을 나누어 보자.

7. 그 명령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는 것이었다. 또한 창세기 21:3에 보면 그가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크든 작든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소한 일들에서부터 순종하는 일에 충성하자. 그러면 아무리 큰일들에도 너끈히 순종하여 드릴 수가 있다.

8.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온 땅을 영원히 소유하게 되리라는 것과(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인한 결과였다). “나(하나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이었다. 이 중 후자의 약속 부분은 오늘의 우리들에게 까지 해당되는 약속이다. 그리고 지금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회복하여 주심을 본다.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처럼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야 말로 유대인들에게나 우리 이방인들에게나 축복을 가져 오는 것이다(로마서 3:29).



## 제184공과 롯의 아내

성경본문: 창세기 19:15-28

보조성경: 누가복음 17:28-32

요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17)

이생에 있는 것들은 일견 사람들의 영혼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 같으면서도 롯의 처의 경우에서처럼 도리어 돌이킬 수 없는 과멸로 이끄는 무서운 함정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시기적절하게 경고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신 경우들이 자주 눈에 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그들처럼 회개치 않는다면 불경건한 자들에게 임했던 그러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리라고 경고하고 계신다. 그러니 이를 명심하라!

1. 하나님은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창세기 18:20)
2.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와 오늘의 우리들의 도시들과 비교하여 그 공통점을 찾아보라.
3. 아브라함이 소돔의 멸망이 임했다는 것을 알고 그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구출하려고 취했던 조치는 무엇이었는지 적어보라(창세기 18:23-32).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런 행위들은 오늘의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본이 되고 있는가?
4.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쓰셨나?
5. 롯과 그의 처가 왜 소돔 성을 떠나는 일에 우물쭈물 하였는가?

6. 천사는 성 밖으로 나온 롯 일행에게 어떠한 경고의 말씀을 주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소돔을 떠난 지 얼마 있다가 불과 유황이 떨어졌는가?(누가복음 17:29)

7. 롯의 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 사건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후 다시 세상을 되돌아보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과의 사이에 공통점들은 무엇인가?

8. 누가복음 17:32절에 보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을 볼 수 있다. 주님께서는 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 해 답

1. 모두가 그 죄가 극히 악하고 관영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소돔 성의 죄는 하나님 앞에 날날이 폭로되어 드러났다. 아무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감추지 못한다(민 32:33).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에 의해 반드시 내려지는 법이다. 이는 지금도 그러하다!

2. 어느 도시에나 죄가 만연되고 있다. 이는 이미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 예언적으로 말한 대로 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도덕성을 상실하고 애정이나 사랑이라고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데에까지 와 있다.

3. 아브라함은 소돔 성을 구해 보려고 주님께 기도하며 중보하였다. 그는 그 성에 의인들이 필요한 만큼 있다면 주께서 그 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위한 우리의 성도로서의 중보기도의 의무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아는 우리로서는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그들이 직접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실지라도 그들을 어찌지는 못하신다. 억지로 예수 믿게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4. 천사들이 롯에게 “서두르라”고 말했다. 롯이 지체하였을 때 천사들은 롯과 그의 처와 그의 딸들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인도하였다. 일단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즉시로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절감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급박성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같이 경고하고 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사 55:6).

5. 아마도 뒤에 두고 온 온갖 재산과 그 성에서 누렸던 존귀와 명예와 또한 같이 떠나기를 거절했던 남은 친척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성경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으리라”(마 6:21)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생에 대한 염려가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응답하기가 어려워지고 늦어진다.

6. 천사는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가라!”고 하였다. 그리고 심판은 같은 날에 떨어졌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확실하다. 구원 받을 마지막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날도 그 즉시로 끝나 버리고 이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이 세상에서 데려 가시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때로는 “사소한 일들”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고 드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다.

7. 롯의 처는 그만 소금기둥이 되어 버렸다. 하나님은 그들 일행들에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나 그녀는 불순종하였던 것이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62절에서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이상에는 매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두고 나아가야만 하며, 우리가 회개할 때 버렸던 그 모든 죄와 세상 정욕들은 돌아보지를 말아야 한다.

8. 주님은 그의 재림의 직전의 때가 바로 소돔 고모라의 때와 비슷할 것임을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과 이를 피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공과를 통해 깨우쳐야 하겠다.

## 제185공과 이 삭

성경본문: 창세기 22:6-14, 24:1-8, 62-67, 26:1-5, 17-33

요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전서 1:27)

이삭은 그 아비 아브라함의 나이 일백세, 그 어미 사라의 나이 90세에 나온 외아들이다.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그 가진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었다(창세기 25:5).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한마디로 “순종의 사람”이었다. 이로 인해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창26:13). 그는 화평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한 사람이기도 하였다.

1. 창세기 21:12절과 신약성경 로마서 9:7절과 히브리서 11:18절에서 보여지고 강조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계획에서 이삭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말해 보라.

2. 아래 부분 가운데서 이삭과 예수님의 생애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성을 찾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림(창세기 22장) -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함(창세기 24장) -

3. 리브가와 아브라함의 종이 돌아와 보니 이삭은 어떠한 태도를 하고 있던 중이었나? 이 태도가 오늘의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을 말해 보라.

4. 이삭은 그 종에게서 리브가를 만난 자초지종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하였나? 그가 리브가에게 취한 행동을 말해 보라.

5. 이삭의 기도생활을 아래에 적어보고 또한 그의 기도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말해 보라(창세기 25:21, 26:24,25).

6. 어느 주석가는 “아브라함이 그 지방에 오래 기거함으로 그 지방 여러 곳에 그가 판 우물들을 그 흔적으로 많이 남겼다” 라고 주석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한 흔적들을 서둘러서 메우고 지워버렸다. 그러나 이삭은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방해하고 메운 우물들을 다시 뚫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들은 무엇인가?

7.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들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것이라고 하며 대들었다. 이같이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삭은 어떠한 자세를 취하였는가? 그리고 그 자세는 어떠한 모본적인 특징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 그것이 왜 칭찬할만한 것인가?

8. 이삭의 삶을 통해서 그가 무슨 이적을 행했다거나 아니면 무슨 용기 있는 공적을 살았다든가 하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는가?

9. 주님께서는 이삭의 순종함과 온전함에 대하여 어떠한 상급을 주셨는가? (창세기 26:3,12,24절)

## 해 답

1.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온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창세기 12:3, 18:18, 22:18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으며, 다시 창세기 26:4절에서 이삭에게 하셨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갈보리에서의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땅의 계보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계보였기 때문이다.

2.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림 - 이삭은 그의 나이가 25세 정도는 되었을 것이므로 할 수만 있었으면 거역할 수 있었을 터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잡아 제사하려는 그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굴복하여 고스란히 드렸다. 예수님 역시 자원하여 그의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드렸다. 그러나 이삭의 경우는 이삭 대신에 다른 희생 제물이 주어졌으나 예수님의 경우는 실제상황으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죽으셔야만 하셨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함 - 이삭의 나이가 40세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직접 나서서 자기 신부감을 구하지 않았으며, 그 아버지가 종을 시켜 대신 구해오게 하였다. 이에 리브가가 왔고 이삭은 그녀를 자기 신부로 맞아 들였다. 우리의 천부께서도 그의 성령을 보내시어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고 계신다. 오늘의 우리는 이삭이 이들 두 경우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 모본적인 신앙인격의 특질들을 잘 살펴보아서 유익을 얻도록 해야 하겠다. 그러면 우리 역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복 주심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삭은 그때 “묵상”하는 중이었다.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는 그러한 태도가 평시에 볼 수 없는 별난 행동으로 보여 지기도 하겠지만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곧 이삭은 자기의 종이 돌아오는 중인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 태도는 그의 일상의 습관이었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묵상”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정의해 보라. 그것은 “영적진리들에 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묵상은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가져온다. 여호수아 1:8절과 시편 1:2절과 63:5,6절과 디모데전서 4:15절은 묵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요즈음 유행하는 “명상”들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위험성이 농후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관하여서만 묵상하도록 노력하자!

4.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 리브가를 의무감에서 그같이 대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이 여인은 나의 부친이 마련해 주신 여자니까 아버지의 소원을 존중해 드려야지”하는 어떤 사명감에서 그같이 대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삭은 리브가에 대하여 진실된 사랑(애정)을 느꼈던 것이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공존하는 하나님이 주신 애정이란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한 요소이다.

5. 임신하지 못한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보면,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 인간의 범사를 하나님이 관여하시어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그의 아내는 그의 기도로 쌍둥이를 낳았다. 이삭은 또한 하나님과의 친교를 즐긴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기도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밤에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제단을 쌓았던 것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예를 통해서 이삭을 본받음으로 영적 유익을 얻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어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이러한 영적 친교가 범사에 생활화되기!

6. 마귀는 염려와 시험으로써 우리의 영적 삶(신앙생활)을 방해하여 메워버리려 한다. 그런 만큼 우리가 인생의 것들에 빠져서 염려하고 시험받지 아니하려면 많은 기도예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가고 있는 인생이란 나그네 길을 여행하면서 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취가 여러 부분에서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날 것이다. 여기서도 마귀는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그런 선한 신앙의 흔적들을 지우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오해하게 만들며...” 하는 식으로 훼방할 것이지만, 여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삭이 다시 아비의 우물을 팠던 것처럼 우리도 마귀의 시도를 맞서서 싸워 이겨야 하겠다. 오해를 불식시키고 선한 일에 더욱 진력해야 하겠다.

7. 이삭은 여러 번이나 다툼이 있을 때마다 자기네가 판 우물들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 이것은 이삭이 평화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바울은 이같이 말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딤후 2:24). 이같이 항상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항상 그같이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도록 바라시며 기대하고 계신다.

8. 이삭의 삶은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17-20에서 믿음의 영웅들의 하나로 기재되고 있다. 이는 그가 믿음으로 그 아비에게 순종하였고 그 또한 한 아비로서 그의 두 아들들(야곱과 에서)에게 믿음으로 축복하였기 때문이었다.

9. 주님께서는 이삭과 함께 하셨으며, 그에게 축복하사 많은 부와 땅과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자손들을 주셨다. 이삭의 순종을 인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속시키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며, 이로서 온 인류가 그 약속의 축복에 동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유할 수 있었다. 우리 역시 이삭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여 드리면 이생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 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의 삶의 윤택함을 누리고 또한 영생을 기쁨으로 상속받게 될 것이다.

## 제186공과 에 서

성경본문: 창세기 25:27-34 ; 히브리서 12:14-17

보조성경: 창세기 27:30-40

요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예레미야 5:25)

우리는 앞장에서 이삭의 복종, 묵상, 애정, 화평, 기도생활을 살펴보았다. 이런 특성들은 오늘의 우리 역시 각자가 개발시킬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에서의 경우들을 보면, 우리는 이삭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것들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데 반면 그 삶의 결과는 이삭의 그것과는 너무도 다른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1. 창세기 25:30절에 보면 에서의 다른 이름으로 “붉음”이란 뜻의 “에돔”이 나오고 있다. 그 이름은 에서가 붉은 팔죽을 먹고 싶어 그의 장자권을 판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사건과 오늘의 성경본문에 나오는 다른 암시들을 사용하여 에서의 인격적 특성에 대해 설명해 보라.

2.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을 때, 그들은 에돔 지경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음에도 어떠한 응답을 받았는가?(민수기 20:14-21). 또 이를 그들의 조상인 에서와 연관시켜 볼 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

3. 갈라디아서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영적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거듭나는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특권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런 좋은 것들이 후사가 되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영영한 지옥 심판을 당하고야 말 것이다. 에서의 세상적인 장자권과 우리의 영적 장자권을 서로 비교하여 보라.

4. 에서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의 장자권의 가치 잘 알지를 못하여 사소한 것과 바꿔치기 하고 말았다. 오늘의 우리들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세상



의 어떤 것과 바꿔치기할 위험이 있다. 내 영혼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권과 바꿀만한 것들이 세상에 있을까?

5. 우리의 영적 장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들어 보라.

6. 에서는 그의 장자권을 판 일로 인하여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는가?(히브리서 12:17)

7. 오늘 에서의 삶을 통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 해 답

1. 에서는 그의 원하는 바를 곧장 이루지 못하면 애가 달아 안절부절 하는 성급한 사람인 것 같다. 또 자신의 고통(배고픔)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 가진 축복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면이 있다. 또한 자신의 추구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 원인을 자신보다는 다른 이에 게서 찾았고, 이 때문에 그들에게 복수심을 품게 된다. 이래도 되는가?

2. 에돔 족속의 반응은 극히 적대적이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이는 그들의 조상 에서가 거의 4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멸시하였던 것처럼 그의 후손인 그들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자손을 멸시하며 적대시하고 있다는 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실패가 자자손손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에 유의하자!

3. 세상에서의 장자권은 오직 장자로 태어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이는 그의 자질이나 다른 어떤 재능하고는 상관이 없다. 우리의 영적 장자권도 우리의 어떤 공로나 능력과는 무관하게 오직 위로부터 온다. 세상의 장자권을 가진 자는 그 가족을 통솔해야 할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영적 장자권을 가진 신자 역시 불신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세상의 장자권을 가지면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축복과 물질적인 혜택을 누린다. 영적 장자권을 가진 신자 역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로부터 공급받게 되며 축복을 누리게 된다.

4. 세상의 돈이나 지위나 명예 등이 우리의 영적 장자권과 바꿀 만 하다고 생각지 않기 바란다. 그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유한한 것들이다. 에서의 팔죽 한 그릇은 그의 장자권과 비교하였을 때 잠시 동안만 필요한 것이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5.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등등이다.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의지(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가운데서 행한다고 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직장을 구하는 것이나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나 친구를 사귀는 것이나 혹은 이사를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등등이 다 이런 예에 포함이 된다. 우리의 영적 특권들을 귀하게 지키려면 영원한 가치의 관점에서 그것들에 걸맞게 선택하는 행위가 따라야 한다.

6. 히브리서 12:17절에 보면, 그는 눈물로 그의 장자권을 다시 찾으려고 했으나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세상의 슬픔과 경건한 슬픔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보라(고린도후서 7:10). 영적으로 귀한 것들을 너무 소홀하게 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을 초래한다.

7. 에서의 실패는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늘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들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것들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선택함으로 후회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

## 제187공과 침례 요한

성경본문: 누가복음 3:1-18

요절: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3:1,2)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외침으로 그리스도 앞에 길을 예비하였다. 역사상 이와 같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 선지자나 설교자는 침례 요한 말고는 달리 없었다. 그의 사명은 이처럼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는 것이었던 것이다.

1. 요한은 당시에 평평거리던 고위 성직자 계급에는 속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요한은 누구에게 어떤 상태에서 이처럼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는가?

2.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요한에게 와서 보고 그 전하는 메시지를 듣도록 이끌었는가?

3. 고대에는 왕이 어디를 행차할 때는 사자를 미리 그 거주민들에게 보내어 왕이 지나가실 길을 치우고 왕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풍습이었다. 길이 험하거나 거친 지역에서는 국도가 없었으므로 이런 사전 준비는 더욱 필요하였다. 오늘의 성경본문 누가복음 3:4절은 바로 이런 점을 말하고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되는가?

4.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5. 요한의 설교내용은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였다. 이 심판을 그는 어떻게 설명하였는가?

6. 선지자 이사야는 침례 요한의 인격에 관하여 어떻게 묘사하였나? 그리고 요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암시를 주었는가? (이사야 40:3)

7. 요한은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한번도 가감하거나 하는 식으로 타협하지 않았다. 그 실례를 하나 들어보라(마태복음 14:3-10).

8. 요한은 어떤 말로써 자신의 무가치함을 나타냈는가?(누가복음 3:16)

9.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셨나?(마태복음 11:9-11)

10.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도록 사명을 주실 때 우리를 어떤 자리에다 놓으시는가? 아래 성구를 찾아 적어보라.

에베소서 4:11절 :

에베소서 4:12절 :

## 해 답

1. 오직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복음전파의 사명을 주셨다. 주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 것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였다. 그의 메시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새 시대(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위한 그 길을 예비하도록 한 것이었다.

2. 혹자는 요한이 침례를 준다고 하면 그의 인품이 참 특이하든가 하는 사람들의 풍문을 듣고 호기심에서 요한을 찾아가 보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끌렸던 것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영감성 때문이었다. 요한의 설교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이 마음은 찢림을 받았고, 오시는 메시야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3. 먼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향유하지 못하게 하거나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들 수 있는 것들로는 “거짓 교훈들”과 “외식”과 “복음에 대한 무관심”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치운 후 온전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들을 그대로 가감 없이 들으며, 전하고, 교훈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간증들을 전해야 한다.

4. 요한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 회개했다고 하는 증거를 보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 참된 의미에서 거의 동의어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의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마음과 생활에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5. 누가복음 3:9절은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고 하였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삶속에 믿음의 선한 열매들을 보기를 원하신다(요 15:2). 우리 역시 요한처럼 오늘날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도 경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6. 이사야는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묘사하였으며 시종일관 겸손한 자로서의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였다. 요한은 마음만 먹으면 사람의 칭찬과 명성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당시 어떤 이들은 요한을 혹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만 자기의 위치를 지켰다. 요한복음 3:30절을 보면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께 대하여서는 “그는 흥하여야겠고”라고 하였으나 자신에 대하여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자신의 분수를 지켰다.

7. 요한은 왕 헤롯이 그의 동생의 처를 취한 것을 불법이라고 지적하여 왕에게 회개를 촉구했다. 왕이라고 봐주거나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는 목숨을 잃었다. 오늘의 우리들도 그러므로 마땅히 진리대로 살고 절대로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시니 우리로서는 이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들로서 요한과 같이 비타협적인 담대한 자세를 견지해야 하겠다.

8.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 끈을 풀만한 자격도 자기에게는 없다고 하였다. 그리스도의 선재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요한의 때나 지금이나 이는 똑같다. 요한은 자신의 힘으로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오직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신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로 하여금 가도록 가리켜 줄 수 있었을 뿐이었다. 우리 역시 그러하다.

9. 예수님은 “못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지 말고 다른 이로 하여금 우리를 칭찬하게 하자.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보기가 훨씬 더 좋다. 우리가 보듯이 나무도 열매가 많이 달린 나무일수록 땅 쪽으로 그 가지들이 휘어진다.

10. 누구나 거듭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소개하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처한 위치가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잘 알아 각자의 위치에서 충성해야 한다. 상기한 구절들은 교회에서의 각자의 위치를 말했을 뿐이다.

## 제188공과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경본문: 마가복음 16:1-14 ; 요한복음 20:19-29

요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29)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11:25)고 말씀하셨다. 온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모아지고 있다. 갈보리는 그리스도의 인자되심을 보여주는 반면에 그의 부활은 그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부활의 진리를 믿으면 영적 부활에 이르게 된다. 물론 먼 훗날의 육체적 부활도 포함된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삶은 그가 인자(사람의 아들)됨을 보여주고 있으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의 능력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준다.

1. “믿는다” 는 말의 뜻을 적어보고 그 말이 신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해 보라.

2.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기까지는 그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20:19-29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3.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믿기는 하여도 아직 직접 보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그 몇 가지를 적어 보라. 이러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에 대하여 믿는 신앙과 비교하여 보라.

4. 부활은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사람 이상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또 부활은 왜 성도에게 그다지도 중요한가?(요한계시록 1:18 ; 고린도전서 15:20-23)

5. 성도가 죽으면 다시 부활하게 되리라는 보장은 무엇인가?(로마서 8:11)
6.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당시의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왜 이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중요한가?(고린도전서 15:6)
7. 어떤 친구가 이렇게 물었다 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당신이 어떻게 안다는 말이에요?” 당신은 여기에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8. 물 침례는 어떤 면에서 부활을 상징하는가?(로마서 6:3-5)

## 해 답

1. “믿는다”는 말은 “어떤 진술이나 약속을 신뢰한다” 혹은 “신앙, 특별히 종교적 신앙을 갖는다” 라는 뜻이다. 신자에게 있어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한다고 하는 것을 뜻한다. 순종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진정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의 믿음이 아니라 죄인의 믿음일 뿐이다. 그런 믿음은 마귀도 가지고 있다(야고보서 2장을 참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하는 믿음은 의인이 믿음이며 이 믿음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엡 2:8). 의인(하나님의 자녀)은 날마다 이 믿음으로 산다(엡 2:4, 히 10:37-39).
2. 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다는 뜻이다. 예나 이제나 또 이후로도 누구든지 그를 보지 못하고서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도 믿는 자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며 이런 믿음에는 영생이라는 크나큰 상급이 주어진다.
3. 믿기는 하여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럼에도 그 나뭇의 유익한 것들이 있는 것들이 분명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다. 이를 우리의 주 예수께 대한 신앙과 비교하여 보면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눈으로 구경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으로 인하여 죄사함이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의 유익을 받는다. 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본 것은 아님에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우리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영육간의 복들을 지금 이생에서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장차 어느 날이 되면 우리는



직접 눈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뵈을 것이며 다시는 그와는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그를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이 장차 가서 누리게 될 복의 하나이다.

4.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다. 이제 그는 사망과 지옥의 모든 열쇠를 갖게 되었다. 이는 예수님이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만이 그같이 자신의 권능으로 무덤에서 나오실 수가 있으신 유일한 분이셨다는 것을 잘 자각하여 한다. 그를 믿는 우리 역시 그와 같이 언젠가는 부활하리라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요한계시록 20:6).

5. 성도의 부활의 소망은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역사적 진리를 믿는 마음의 신앙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성령이 주신다.

6. 일시에 오백여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 이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 나셨다고 하는 것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중의 증거이다. 그 목격자들 하나하나를 당신이 직접 인터뷰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다 이구동성으로 “내가 사신 예수님을 분명 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외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증거는 없다.

7.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역사적 증거들은 넘쳐나도록 많이 있다. 상기한 목격자들 이외에도 자기 목숨을 버려 가면서까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한 신자들과 오늘날에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고 병 고침을 받는 등의 증거들이 있다. 이외에도 당신 자신이 부활하신 주를 만나 본 간증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8. 사도 바울은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침례양식을 들어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부활이 실제로 없다면 그 모든 침례양식은 다 무의미할 것이다.

## 제189공과 베드로

성경본문: 마태복음 26:30-35, 69-75; 사도행전 2:14-24, 41

보조성경: 요한복음 21:15-17, 베드로전서 1:3-9

요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15)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생업을 버렸었다. 그는 예수님이 오천 명을 기적적으로 먹이시는 것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물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보기도 하였던 사람이었다. 그는 메시아로부터 직접 사랑과 용서와 용기와 충성과 믿음과 순종을 배웠었다. 오늘 이 공과에서는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지 못한 베드로의 실패를 그가 오순절 성령체험 후에 주님께 삼천 명의 영혼을 구원해 낸 성공과 비교하여 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의 실패와 성공의 원인들을 분석하여 우리의 삶에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더욱 우리 주님을 성공적으로 잘 섬길 수 있었으면 한다.

1.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26:30-35절에서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베드로의 결심에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2. 베드로는 그의 때 이른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험이 왔을 때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 나사렛 예수의 도당이 아니냐는 질문을 세 번 당하였을 때 베드로의 태도는 각각 어떻게 나타났는가?

3. 마태복음 26:40,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한 실패의 원인 한 가지가 나와 있다. 그 이유를 적어보라.

4. 우리는 꼭 실패를 해야만 우리의 연약성을 알 수가 있는가?

5. 베드로는 왜 그렇게도 닭 우는 소리에 화들짝 놀랐는가?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는가? 또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6. 마태복음 26:75절을 요한복음 21:15-17절과 비교하여 보라. 서로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7. 오늘의 또 다른 본문인 사도행전 2:14,41절에 보면, 전날에 주님을 부인 하였던 베드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베드로가 나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것처럼 많은 무리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담대히 전파할 수 있게 만들었는가?(사도행전 1:8)

8. 성경을 보면 각 시대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강함과 약함의 양면성을 다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왜 이같이 그들의 양면성을 모두 다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는가?(디모데후서 3:16 ; 베드로후서 3:17,18)

9. 지금 당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실 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아래에다 적어보라.

## 해 답

1. 베드로의 주님께 대한 충성선언은 주님의 능력과 자신의 연약성을 잘 알고서 행한 믿음의 선언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데서 나온 호언장담이었다.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한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주님의 능력을 절대 의지하여야만 가능하다. 당신은 이런 베드로와 같지 않는가!

2. 처음에 그는 간단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다. 다음에는 맹세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했다. 끝으로는 맹세와 저주를 하면서 모른다고 했다. 이는 주님을 한번 부인하게 되면 그 죄가 점차로 깊어진다고 사실을 경고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주님을 모른다고 절대 부인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3. 누구든지 날마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쉽게 마귀의 표적이 된다. 그러므로 날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감미로운 교

제를 하는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4. 마태복음 26:41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셨다. 우리의 몸은 쉽게 피곤함을 느끼거나 병드는 약함이 있다. 그러나 이런 약함을 인해 당연히 해야 할 기도나 성경읽기 등을 소홀히 한다면 위험하다. 영혼이 살려면 그러한 육체의 약함을 극복해야 한다. 그래서 범사에 육의 소욕대로 좇지 말고 영의 소욕대로 좇아 행함으로 늘 강인한 신앙인격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범사에 주님은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5.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닭이 울자 이를 깨달은 것이었다. 그리고는 그는 마음에 깊은 슬픔을 주체할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가 대성통곡하였다. 진정한 회개는 죄 때문에 슬퍼하는 눈물이 따른다. 그래서 그 순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기 죄를 깊이 회개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돌이킨 후에 하나님의 귀히 쓰임을 받은 베드로 이외의 다른 인물을 들어보라.

6.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세 번 부인한 것과 역시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세 번 다짐하는 것으로 나온다. 후자의 성구를 보면 베드로는 주님이 그에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 물으신 것 때문에 그 마음이 근심한다. 그때 분명 그는 예전에 자기가 주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일을 기억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베드로가 거듭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그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주님만을 깊이 의지해야 할 것의 중요성을 잘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죄를 이기는 신앙생활의 비결을 다시 한번 잘 깨달아야 하겠다.

7. 회개함으로써 다시 용서받고 사도로서 복권한 베드로는 또한 성령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후부터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믿음이 강화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를 한번 조사해보라.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마리아와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며 이적적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잡게

하여 주셨으며, 제자들과의 친교를 다시 가지는 등으로 제자들의 신앙을 고취시키셨다. 그러나 이런 것들만으로는 베드로의 그러한 변신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그 진정한 원인은 그가 다락방에서 120분도와 함께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기도한 후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에 있다.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한 우리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데는 왜 꼭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지를 생각해 보라.

8. 이 사람들은 슈퍼맨이 아니다.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으로 약하여 시험과 시련을 당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는 신앙의 실패를 맛보기도 하였다. 시험과 시련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신앙을 지킨 이들도 있다. 이런 실패자와 성공자들의 이야기를 한데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깨닫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힘의 원천, 참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다.

9. 지금 예수님을 증거 하는데 얼마만한 효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피고, 나의 영력의 정도를 점검해 보기 바란다. 사랑과 기도생활의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 등등 살펴보면, 개선할 부분을 발견할 것이다. 그런 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어 더 나은 진보(성숙)를 이루게 될 것이다.

## 제190공과 바울

성경본문: 고린도후서 4:8-18, 11:24-28 ; 디모데후서 4:6-8

요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디모데후서 4:7,8)

바울 사도는 그의 일생에 두 가지 일에 전력투구하였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의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두 가지 일에 성공하였다. 이는 그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모든 교훈대로 온전히 따랐던 때문이었다.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이만 한다면 많은 영혼을 얻고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1. 바울은 주님을 섬기면서 형언할 수 없는 많은 괴로움과 시련을 당했으며서도 그것들을 “가벼운 것들”로 보았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몇 가지 적어보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과 우리의 장래의 의의 면류관을 얻는 것과의 관계를 설명해 보라.

2.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3. 고린도후서 4:8,9절에 보면 대조되는 것들의 항목이 많이 나온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뺨박을 당해도 버림 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해보라.

4.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 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보라.

5. 고린도후서 4:8-18절에 나오는 고난의 항목들이 말해 주듯이 사도 바울의 주님을 향한 그 신실성은 참으로 놀랍다. 여기서 “신실하다”는 뜻을 설명해 보라.

6. 바울은 그의 성도로서의 삶을 선택 사움에다 비유했다. 그 뜻을 설명해 보라.

7. 의의 면류관은 이러한 바울과 또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8. 야고보서 1:12절에 보면, 또 다른 면류관 곧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이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울은 어떻게 이를 행하였는가?

## 해 답

1.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일시적인 역경과 거짓 고소와 육신적인 고통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신앙으로 극복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야 천국에서의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그러면 이 둘을 비교해 볼 때,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고통의 차이라는 것이 됨으로, 바울의 고백대로 “환난은 일시적이나 영광은 영원하다”(롬 8:18)이다.

2. 환난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환란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만하면 이길 수가 있다. 그러면 도리어 그 환란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게 된다. 역경 중에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이끄심이 더욱 강하게 나타남으로,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과 주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 풍성케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를 명심하여 환란을 당할 때 놀라거나 두려워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해야 한다.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능히 가능하다. 우리의 처한 상황이나 여건이 아무리 불리할지라도 주 예수께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장래에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바울은 영생의 소망을 인하여 끝까지 견딜 수 있다.

4.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치는 온갖 시련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새롭게 된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새로운 은혜와 힘으로 채워진다”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그같이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질 것이다.

5. 그것은 “신앙을 견지하다”, “끝까지 신뢰하다”, “정직하다”, “충성하다”, “의뢰하다”는 뜻이다. 신자가 의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면, 주님께 신실해야 한다.

6. 싸움이이라고 말한 이상 싸울 대상이 있다. 바울에게는 마귀가 그의 원수였다. 마귀와의 모든 싸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승리하였다. 바울의 본을 좇아 오늘의 우리 역시 마귀와의 싸움에서, 죄와 유혹과 온갖 시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 현실이다. 패배적인 믿음은 아무짝에도 효력이 없다.

7. 성도로 부름 받은 자로서 거기에 걸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의의 면류관을 받고자 한다면 빛(진리의 말씀)가운데 행해야 하고, 세상에서 점도 흠도 없이 살아야 하며, 하나님께 신실하며 충성하고 헌신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8. 시험을 참고 이겨야 한다. 바울은 모든 시험과 시련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고 이겼다. 어떤 때는 포기하고픈 때도 많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참았다. “참는다”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끝까지 견디거나 참아낸다”와 “계속적으로 인내하여 이기고야 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는 단순히 참는 차원이 아니라 온전히 참아내는 것, 곧 끝까지 참아내어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제191공과 요 나

성경본문: 요나 1장-3장

보조성경: 마태복음 12:39-41

요절: “여호와와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 3:1-3)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나 같은 선지자가 왜 그의 사명을 핑개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고자 하였을까? 우리는 오늘의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은 범사에 어느 때이든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1.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다.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다. 이것이 요나의 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2. 요나가 니느웨로 가고자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3.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었으면서도 배 밑창으로 내려가 세상 모르게 잠을 자면서 한창 기승을 부리던 바다의 폭풍도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어떤 면을 보여주는가? 또 이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에 아랑곳없이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과 방불한가?

4. 오늘의 성경본문 중 어느 구절이 요나의 태도의 전환점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가? 그 구절을 통해 요나의 태도를 설명해 보라.

5.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을 때 요나가 자신의 영적상태에 대하여 느낀

감정을 설명해 보라. 그리고 그 같은 비참한 상태에서 그가 취했던 태도는 어떤 것이었나?

6. 요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

7. 요나가 니느웨에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으며,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8.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러한 요나서의 기록을 사실로 믿으려고 않는다. 요나서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신약성경 구절을 찾아보라.

9. 당신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해 본 적이 없는가? 그로 인한 실패를 통해서 당신은 어떠한 교훈을 얻었는가?

## 해 답

1. 요나의 개인적인 마음은 그의 조국의 원수인 니느웨가 망했으면 했을 것이다. 그러나 니느웨가 회개한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적인 핑계나 이유라도 그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한다든가 불순종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오직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잠언 24:17,18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2. 도망가는 요나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주님은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셨다. 오늘날 우리들의 경우도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면 금방 어려움이 닥치고 환란이 오게 된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때를 맞고서야 순종을 배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자.

3. 요나는 그같이 함으로써 불순종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을 잊고자 한 것 같다. 오늘날의 사람들 역시 그들의 죄에 대해 애써 무감각해지려고 하며 죄책감을 잊어 보려고 발버둥 친다. 이 때문에 술을 찾든가 마약을 복용하든가 한다. 요나가 잠을 자친 것과 방불하다. 그러면서도 양심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 끝내는 성령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데까지 가고 만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무 유익도 가져오지 못한다. 무감각하게 자신을 방임한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4. 비록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까지는 한마디라도 기도다운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1:12절에 보면 그가 바다의 풍랑을 몰고 온 장본인인 것을 뱃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있음을 본다. 이는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이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왜 그다지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첫걸음이 되는지를 말해보라.

5. 그는 자신이 지금 지옥(음부)에 있다고 느꼈다. 경건한 슬픔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가져온다. 자기 죄를 깨우치게 된다. 요나는 하나님이 보이신 그대로 자신을 직시하고서 경건한 슬픔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아뢰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내맡겼다.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다. 이처럼 자기 죄를 깨닫고 시인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더 나아가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6. 요나의 기도의 결과 하나님의 중재하심이 있었다. 곧 하나님은 물고기에 요나를 물으로 토해 놓도록 역사하셨다. 그런 후 또 다시 사명을 주시어 두 번째로 니느웨로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변한 것은 요나의 태도(마음)이었다. 전날의 원치 않았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변했다. 이처럼 누구든지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

7. 그것은 “사십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였다. 이는 심판의 메시지였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회개하여 멸망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이같이 회개함으로 임박한 진노에서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신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눅 13:5).

8. 마태복음 12:40,41 마태복음 16:4 그리고 누가복음 11:29,30.32절이다. 이는 모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

## 제192공과 엘리사

성경본문: 열왕기하 2:1-15

보조성경: 열왕기하 4:1-7, 18-37, 6:1-7

요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겹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열왕기하 2:14)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의 후계자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사명을 주셨다. 엘리야가 찾았을 때 마침 엘리사는 열두 겨리의 소들을 앞세우고 밭을 경작하고 있었다. 엘리야는 그의 권위의 상징인 겹옷을 엘리사에게 벗어 던졌다. 이로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의 사명을 이루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 의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산 채로 하늘로 데려 감을 받았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겹옷을 받고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에서 일하였다.

1.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의 겹옷을 던졌을 때 엘리사는 오늘의 우리에게 어떠한 귀감이 될 만한 태도를 보였는가?(열왕기상 19:19-21).

2. 상기한 열왕기상 19:19-21절 이후로는 여러 해 동안 엘리사에 관한 기록이 성경 상에 나오지 않는다. 그동안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다시 고향 집으로 돌아간 것인가?(왕상 19:21, 왕하 3:11).

3.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서 하늘로 들리리라는 것을 알고 있던 엘리사와 엘리야를 따르던 그 선지생도들의 태도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라.

4. 오늘의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찍이서 좇게 될 때 그 위험성의 몇 가지를 적어 보라.

5. 우리는 엘리사가 몇 번의 낙심할만한 일들에 직면하는 것을 본다. 그 중 몇 가지는 엘리야로부터 왔다. 이는 엘리야의 삶에 나타났던 하나님

의 능력을 갑절이나 자기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구한 것과 연관이 있다. 그것들이 무엇이며, 엘리사는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였나?

6.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은 것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성령강림과는 어떠한 유사성이 있는가? (행2:4)

7.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은 후 그의 삶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그 중 몇 가지를 적어 보라.

8. 열왕기하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적 네 가지를 포함해서 엘리사가 행한 여러 이적들은 엘리사의 어떤 좋은 신앙인격을 보여주는가?

9.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 인격과 삶의 스타일(방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 중 몇 가지를 열거해 보라.

10. 열왕기하 13:20,21절에 보면 엘리사의 능력의 일단을 보여주는 기사가 나온다. 거기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어떻게 높이시고 계시는가?

## 해 답

1. 엘리사는 마침 그때에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부농이었던 것 같다. 이는 그가 열두 겨리의 소들을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던 데서도 잘 나타난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그 모든 것들을 뒤에 두고서 그 부르심을 따랐다. 자원하여 그같이 하였다. 오늘의 우리 역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마다 받는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엘리사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따라야 한다.

2. 이 당시 그는 엘리야의 종으로서 엘리야를 수종들었다. 이처럼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성장하려면 그전에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해서 자원하여 남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

3. 엘리사는 엘리야를 바싹 좇았으나 선지 성도들은 멀찍이서 관망만 하였다. 다음의 질문으로 넘어가 보라.

4. 그 몇 가지로는 의심, 두려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의 상실 내지는 영원히 버림 받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들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바로 전에 그같이 예수님을 멀찍이서 좇았다(마 26:58). 만일에 엘리사가 이처럼 멀찍이서 엘리야를 좇았다더라면 그 같은 능력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5. 선지 생도들과 엘리야는 여러 번이나 엘리사에게 “뒤로 물러 있으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자기가 그 능력을 받기까지는 절대로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실례로는 구약 창세기 32:26절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결코 천사를 놓아 주지 않겠다고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원하는 은혜를 받았다. 이러한 끈질긴 매달림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오늘의 우리들 역시 이러한 예를 따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6. 둘 다 그 축복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였고, 하나 되어 있었으며,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였고, 그 능력이 임한 후에는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했다는 점이다. 선지생도들은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머무른 것을 알았다(왕하 2:15). 초대교회 때도 백성의 치리자들은 사도들이 본래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행 4:13). 오늘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또 그 받은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사도들과 엘리사를 통하여 깨달아야 한다.

7. 엘리사가 그런 능력을 받은 증거는 여러 가지의 이적들을 행함으로써 나타났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있었다(왕하 4:35). 성경에는 엘리사가 행한 이적의 수가 14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수는 엘리야가 행한 이적의 갑절이다. 또 여러 예언들도 기록되어 있다.

8. 겸손, 사랑, 관심, 타인에 대한 동정심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가 행한 이적 중 여덟이 다른 사람을 돕고 격려하는 것들이며,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다. 나아만 장군을 고친 경우를 보면, 엘리사는 나아만이 그에게 주는 당연한 선물들까지도 거절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역시 엘리사의 좋은 면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9. 엘리야는 기탄없이 말하는 사람이었고, 광야에 사는 야성적이고도 불같은 정열의 사람이었으며, 여러 왕들의 미움을 받았으면 또한 두려워하며 낙망하기도 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엘리사는 유쾌한 사람으로서 어떤 집에 기거하면서 이웃과 교제하며 살았으며, 여러 왕들의 자문 요청을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인격이나 성격적 기질 혹은 그 삶의 방식이 어떠하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능히 유용하게 쓰신다.

10. 엘리사의 유골에 조차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여 그의 뼈에 닿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적이 일어났다. 히브리서 11:4절에 보면 아벨이 죽었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건한 남녀 성도들은 죽은 후에도 그 후세들에게 영적 귀감을 남기고 있음을 보게 된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사후에도 후세들에게 영적 유익을 물려주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가?

## 제193공과 모세의 어머니

성경본문: 출애굽기 1:22, 2:1-10 ; 히브리서 11:23

보조성경: 출애굽기 6:20, 히브리서 11:24-26

요절: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1:12)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는가? 모세의 아버지 아브람은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다. 그런데 이 요게벳이 참으로 현숙한 어머니였다. 그녀가 그 아들 모세에게 심어 준 하나님의 교훈들은 너무도 철두철미한 것이어서 그 이후로 모세가 이방 애굽에서 성장하여 여러 학식을 쌓았음에도 없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실로 모세가 나이 40세에 이르기까지 애굽에서 배우고 익힌 학식은 당시 세계에서는 최상의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 어머니로부터 배운 어릴 적의 신앙교육은 퇴색하기는커녕 도리어 그 빛을 발할 만큼 그 영향이 탁월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요게벳의 위대한 점은 그 아들 모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제대로 심어주는데 성공하였다는 사실이다.

1. 남자가 나거든... 그를 하수에 던지고...” (출 1:22)라는 애굽왕의 명령으로 인하여 애굽강은 모든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에게 비탄과 공포의 상징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요게벳은 어떠한 현숙한 행동을 보였는가?

2. 모세의 부모는 왜 애굽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는가? 만일 당신이었다면 그 같은 상황아래서 어떻게 행하였겠는가?

3.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 속에 넣어 하숫가 갈대 사이에 두면 그 아기가 안전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는가?

4. 모세의 어머니가 가르친 교훈들은 모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히브리서 11:23-26)



5. 어머니 요게벳과 그 아들 모세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훌륭한 점은 신앙의 덕이다. 이것이 두 사람의 일생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묘사해 보라. 그리고 만약 그들에게 그러한 신앙이 없었더라면 그들의 일생은 어떻게 변하였을까요?

6. 당신은 요게벳이나 모세처럼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거나 의탁했다가 응답을 받은 사람을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것을 통해 얻은 교훈을 아래에 적어보라.

7.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가 왜 그리 어려운가?(고린도후서 3:5)

8. 사람은 무엇 무엇을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하는가?

## 해 답

1. 요게벳은 전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였다. 이로써 그는 안전할 수 있었다. “의지하다”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아무개의 인격이나 능력이나 힘이나 진실을 기대하고 의뢰하다”이다.

2. 히브리서 11:23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 아니하였다고 하였다. 요한일서 4:18절에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였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약함을 잘 알아야 하며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알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담대해질 수 있을 것이다.

3. 아기가 죽을지 살지는 알 수가 없었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일임한 이상 하나님이 알아서 보호해 주시리라는 확신은 가졌을 것이다. 이런 확신은 오랜 후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것과도 동일한 확신으로서, 이는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다. 이에 대해 오늘의 요절이 잘 말해주고 있다(디모데후서 1:12). 그 요점은 이러하다. 곧 우리가 문제에서 손을 놓아버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일임을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을 수가 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 손이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더욱 얽혀 꼬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면 할수록 그 결과는 참담한 패배와 실패뿐일 것이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도록 하자!

4. 선택의 기로에서 모세가 어느 쪽을 택했는지를 보면 금방 그 교훈의 영향을 알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모세에게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들에서 그의 신앙인격이 얼마나 긍정적인 면으로 강하게 잘 나타나 있는지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이처럼 어릴 적의 제대로 된 신앙교육은 일생을 결정짓는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5. 요게벳은 그 아기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의 신앙을 증명하였다.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택함으로 그의 신앙을 증명했다. 만일 모세에게 신앙이 없었더라면, 그는 결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 받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요게벳이 신앙이 없었더라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의 사건은 없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처럼 신앙은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6.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없음을 배우고 또한 진실한 의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한다는 것도 깨닫기를 바란다.

7. 사람의 본성 자체가 자신을 뭐 된 것 같이 자만하기 때문이다. 온 세상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하나님 중심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가? 시편 118:8절과 잠언 3:5-6절을 보기 바란다.

8. 모든 영육 간에 필요한 것 일체가 다 위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 특히 영적인 문제를 우선하여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죄짓지 않고 살아가려면 날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시편 37:5를 참조하라.

## 제194공과 솔로몬

성경본문: 열왕기상 3:5-14, 4:29-34

보조성경: 열왕기상 3:16-28

요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 (욥기 28:28)

다윗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자기의 후계자로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했다. 그런 후 그는 부친으로서 아들에게 주는 유언 비슷하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령했다 (대상 28:9). 그전에 이미 다윗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 주시기를 구하면서(대상 22:12), 그가 주의 성전을 짓도록 조언하고 훈계하였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바람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성경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나아와서 그의 지혜를 구하라고 격려하고 있음을 본다.

1. 열왕기상 3:3절에는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왕상 3:5)고 하신 근본 이유가 나타나 있다. 그게 무엇인지 적어보라. 그리고 이 솔로몬의 속성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왜 중요한 것인가?

2. 하나님의 물으심을 받고서 대답한 솔로몬의 말들을 면밀하게 생각해보고 거기서 오늘의 우리가 얻는 영적 특징들을 적어보라(열왕기상 3:6-9).

3.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들의 목록을 적어보라.

4. 신약성경 야고보서 4:3절을 읽어 보신 후에 만약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 대신 세상의 부와 명예를 우선하여 구하였다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어떠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가?

5.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 응답이 되었다는 어떤 증거를 하나를 대보라

(열왕기상 3:16-28). 그리고 그 솔로몬의 지혜는 다만 재판을 바로 하는 일에만 국한되는 그런 지혜였는가?

6. 스바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

7.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할 때는 선악을 분별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신령한 지혜는 그 이상의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야고보서 3:17절을 읽어본 후 그 특성 몇을 아래에 적어보라.

8. 이러한 경건한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야고보서 1:5,6, 22-25).

9. 경건한 지혜는 성도의 성숙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베소서 3:17-19, 4:13).

## 해 답

1.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때문이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온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축복을 받는 출발점이고, 근거이며 본질이다. 그리고 그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타적으로 쓰게 되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빛 가운데서 행할 수가 있게 되고 성숙하게 될 것이다.

2. 6절에서 솔로몬은 그의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 그는 그의 경건한 신앙상속과 왕위계승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은 것이다. 7절에서는 “작은 아이”라고 자신을 낮춘다. 참고로 베드로전서 5:5절을 보기 바란다. 8절에서는 자신을 “중”으로 표현하면서 기꺼이 남을 섬기고자 한다(마 23:11), 9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큰 증거 중의 하나인 이웃 사랑이 나타난다(요일 4:21). 다시 9절에서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하고 공의를 시행하기 원

함으로 의를 행하길 바라는 그의 마음을 드러낸다. 그는 의를 갈망한 것이다 (마 5:6).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음의 특질(곧 감사, 겸손, 사랑, 공의행하기를 원함, 이웃 섬김의 마음)로 인해서 솔로몬은 그 구하는 바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된다. 이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된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러한 영적 특질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마음과 생활 가운데서 기도에 힘쓰면 솔로몬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못 사람보다도 뛰어난 지혜와 총명과 풍부한 부와 명예와 장수이다. 이 중 장수의 축복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신실히 계속 섬기는 경우에 한해서 주신다고 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시는 약속 그대로를 보여주는 귀한 표본이다.

4. 아마도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의 통치는 평범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을 즐겨 섬기고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한 솔로몬의 이러한 태도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자기 왕국을 빼앗기지 않을까 도리어 두려워한 여로보암 왕의 태도(왕상12:26-33)를 비교해 보라. 솔로몬은 자신을 비워 바르게 구한 까닭에 그 구한 것 이상의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없이 자기 왕국을 운영하고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가려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의 왕국도 그의 생명도 잃고 말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우리 자신을 위한 축재수단이나 출세수단으로 이용하려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려는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대의와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드려야 하겠다. 그러면 우리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날 것이며 이로써 모든 이웃들에게 축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5. 아기의 친모가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솔로몬의 재판 처리과정을 보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총명을 받은 것이 금방 드러난다. 이런 재판에만 솔로몬의 지혜가 국한되는 않았다. 이 지혜는 인간의 속성을 비롯해서 모든 자연계에 대해 밝히 이해하는 마음까지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그의 지혜는 동서고금을 비롯해서 전무후무한 것이었다. 당대의 동방과 애굽의 모든 이들보다 뛰어났다. 그는 많은 잠언들과 노래들을 지었다. 그의 잠언의 일부가 성경에 기록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그 성경책 이름이 무엇인가요?

6. 그 생각이 혼란스러울 만큼 완전히 압도당해 버렸다. 여왕은 이같이 소리쳤다.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도다!” 이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 주 예수님의 지혜와 비교하여 보라(마태복음 12:42). 솔로몬은 스바 여왕의 어떠한 어려운 질문에도 다 대답해 주었다. 예수님 역시 그 이상으로 어떠한 난제들도 다 시원하게 대답하셨다. 그의 원수들은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왔다가 그의 대답에 경악하며 낭패를 당하곤 했다. 재정을 다루는 지혜와 인간관계를 다루는 지혜와 일들을 처리하는 지혜와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온갖 지혜를 하나님은 풍부히 갖고 계시므로 우리는 이를 늘 기억하여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지혜를 얻도록 해야 하겠다.

7. 마음의 청결을 소유하는 것과 화평한 심령을 가지는 것과 진실한 신사숙녀가 되는 것과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것과 궁핍한 이들을 도와주되 겸손과 관용과 온유로 할 것이며 결코 자기과시나 잘난 채 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다 경건한 지혜의 특성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알면 참 지혜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지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 세상의 다른 어떤 신념이나 사상도 이러한 특성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

8. 먼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다음에는 구하되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끝으로 그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순종해야 한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거저 주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며, 전심전력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여 더욱 하나님을 찾으며, 잘 섬기면 섬길수록 더 큰 지혜들이 위로부터 그의 삶에 내려오게 된다.

9. 역경 중에도 그 믿음이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고 견디어 승리하는 성도들을 관찰한 적이 있는가? 험한 말을 들었으면서도 온유하게 대하는 성도들을 본 적이 있는가? 공격을 받으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도리어 공격하지 아니하고 축복하며 친절을 베풀어 주는 성도들을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이들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

는 “성숙한 성도들”이다. 상기한 야고보서 구절들을 보면 바울이 그의 교회 신자들에게 바라는 바가 담겨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엡 3:17-19). 이처럼 경건한 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나타난다. 그리고 성도의 성숙은 이처럼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이는 바로 실체이다.

## 제195공과 공과 복습

성경본문: 히브리서 11:8-27

요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시편 37:37)

지금까지 우리는 12공과들을 통해 성경의 여러 인물들에 대해 배웠다. 그 중에는 믿음의 영웅들도 있으나 그 반대의 인물들도 있었다. 그러나 저마다 우리에게서 귀한 교훈을 준다. 오늘 공과에서는 이들 인물들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보면서 그들의 강함과 약함을 살펴보고 그 교훈들을 오늘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로 하자.

1. 아브라함의 삶은 진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른 자의 하나의 탁월한 실례이다. 오늘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는 뛰어난 점들 몇을 적어보라.

2.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일들에 휩쓸리지 않도록(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생의 일들에 우리의 삶이 휩싸이게 될 위험을 말해 보라. 룯의 처를 기억해 보기 바란다.

3. 창세기 25:27-34절에 보면 이생의 일시적인 것을 바라고 자신의 더 중요한 장자권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버림을 당하고 만 어처구니없는 비극적인 인물의 실례가 있다. 우리 거듭난 신자들이 영적 장자권을 이생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아래에 적어 보라.

4. 침례 요한의 세상을 향한 사명은 무엇이었으며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사명과 어떻게 비슷한가? 또 이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한복음 1:29-31).

5.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가 이전에 주를 부인하던 때의 그 모습과는 전혀 판이하다. 이러한 변화를 몰고 온 일련의 사건들을 추적하여 보라.

6. 성경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의 나타나심을 고대하는 자들이 장차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리라고 말한다. 주님을 신실히 섬기려하면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고대하여야 하는가?

7.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하숫가 갈대 사이에 두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였을 것이다. 어떤 확신을 갖고 그렇게 행하였던가? 그녀의 태도와 행위가 오늘의 우리에게 모본이 되는 이유와 측면을 설명하여 보라. 디모데후서 1:12절을 참고하라.

8. 솔로몬이 오늘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면을 적어보라. 오늘의 우리가 이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할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보라.

9. 지금까지 배워 온 성경상의 인물들은 저마다 선악 간에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저마다 그에 따른 책임을 졌다. 어떤 이는 칭찬으로, 어떤 이는 부끄러움으로! 오늘의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어떻게 분별하는가?

## 해 답

1.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원하여 고향을 떠났으며, 장막에 거하면



서 모든 소망을 하늘의 본향(하나님 나라)에 두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25년간 믿고 기다렸으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때는 기꺼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을 본받아 하나님을 자원하여 믿고 순종하려는 자들을 좋아하신다.

2. 우리가 인생의 일들에 말려들게 되면 회개치 않는 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실례들로는 롯의 처 말고도 사울 왕이나 압살롬이나 가룟 유다가 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이처럼 위험하며 하나님께 갈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 버릴 위험이 있음을 기억하라.

3. 기도로 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과 시험과 유혹을 당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 굳게 의지할 것과 같은 신앙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결혼 상대자를 만나 신앙의 가정을 꾸밀 것과 경건한 친구와 이웃들을 사귀고 가까이 할 것과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직장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가질 것 등이 있다. 요컨대 무슨 일이든지 나의 영혼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요한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는 일이었다. 성도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다(막 16:15). 이 사명을 잘 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일꾼으로서의 훈련을 쌓아야 하고, 사람들을 청하여 교회로 인도하여야 하며, 사람들 앞에서 빛 된 생활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경건한 말씀들과 간증들을 말해 주어야 하며, 영적으로 유익이 될 만한 경건서적들과 여러 책자들을 전하여 주어서 읽게 하고 성경을 공부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인 됨을 알게 하여서 그들로 믿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어야 한다.

5. 베드로는 주를 부인한 후 자신의 죄를 깨닫고서 크게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였다. 그 후 그는 다시 제자들과 한데 어울려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고,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인시켰다. 이후 120문도들의 일원으로서 일심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때 그는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능력과 담대함을 입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예수를 힘 있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귀히 쓰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6. 매일 범사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충성하는 것이 주님을 신실히 섬기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첫째로 삼아 살아야 하고 늘 빛(말씀)가운데서 행하여야 하며, 이 세상에서 점도 티도 흠도 주를 잡힌 것(이 모두는 한마디로 죄를 상징하는 것들임)이 없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한다. 진정으로 주를 사랑하는 믿음의 소유자는 그것이 가능하다.

7. 요게벳은 아기 모세가 하나님의 장중에서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을 굳게 믿었다(히 11:23).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속에 바울의 마음에 주셨던 것과 같은 확신을 주셨던 것이다(딤후 1:12). 또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일임한 후 그 문제에서 자신의 손을 떼었다. 우리 역시 무슨 일이든 먼저 하나님께 맡긴 후에는 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평강을 누려야 한다. 요게벳은 이렇게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8. 지혜이다. 솔로몬은 올바른 기도를 드림으로 지혜를 얻었을 뿐 아니라 구하지도 아니한 다른 축복들까지 받았다. 오늘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면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영생을 얻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건한 지혜가 결핍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증거 하기보다는 부족함을 더 드러내어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당신은 세상적인 지혜를 더 귀히 여기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더 사모하는가? 그렇다면 돌이켜야 한다.

9.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의 인도자와 스승으로 보내 주셨다. 누구든지 거듭남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범사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무엇을 결정할 때는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가운데서 자신을 살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결정을 세상취향과 같게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며, 도리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해야 한다. 그러면 날마다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며 늘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볼 것이다.